



짜퉁 팔고
총천재 속이고
소비자 기만 논란
니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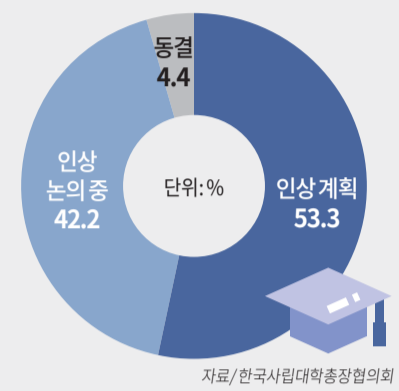
CJ올리브영
100억 브랜드
100개 돌파
L2



사립대 53%, 등록금 인상 계획 “첨단 교육환경 구축 위해 불가피”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 동결 대학 4.4%, 인하 계획 없어 16년간 동결로 시설 개선 등 어려움 첨단실험실습 확충 등 인상 필요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



사립대 총장 10명 중 5명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명 중 4명도 '등록금 인상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가능성을 남겨, 올해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전국 사립대 총장 152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 90개교 중 53.3%인 48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곳은 38개교(42.2%)였다. 단,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는 학교위원과 학생위원, 외부위원이 함께 등록금 인상에 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고, 등록금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3년 동안 ▲2022년 6개교 ▲2023년 17개교 ▲2024년 26개교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활용 계획으로는 ▲1순위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 ▲2순위 '학생 복지 지원 시스템 및 시설 강화' ▲3순위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및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답하며,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 복지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총장들은 대학의 현안으로 75.9%가

등록금 인상을 1순위에 꼽았다. 2순위는 대학 관련 규제 개선, 3순위는 대학 내 인프라 개선이다.

총장들이 밝힌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구체적인 어려움에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97.8%에 달했다. 97.7%가 첨단 교육시설 개선, 96.6%가 우수 교직원 채용, 94.5%가 학생 복지 개선을 선택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학이 지난 16여년 간 동결을 유지하는 동안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은 135.9%에 달하고, 공무원 봉급은 2011년 이후 계속 인상돼 누적 인상이 144.1%로, 물가인상률보다도 8.2%p 높게 인상됐다"라며 "이제는 대학도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 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지원

서울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로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태어나더라도 시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5~7월 '몽땅정보 만들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설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2940억 발행

5% 할인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16일 총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성동·강서·성북·도봉·구로·동작·관

악·강남구는 지역 상품권 이용시 결제 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성동구와 강서구는 결제 금액의 2%를,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올 1월 결제 건부터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

화성시, 고향사랑기부 전수 경기도 '1위'

작년 총 5504건, 5억 3725만원 달성

화성특례시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결과 5504건, 총 5억 3725만원을 달성해 경기도 내 고향사랑기부 전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기부 건수는 140%, 모금액은 150%가 증가한 것으로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시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그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공공기관 홍보, 관내 카페 등과 협업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누적 모금액 8억 9621만원, 기부 전수 9426건으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기부액은 9만 500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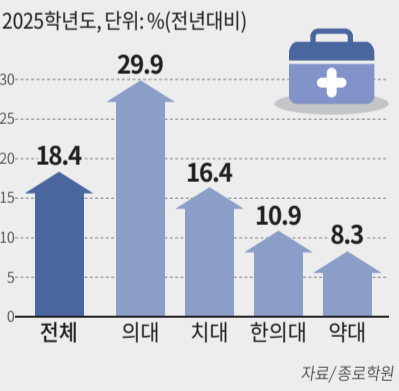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6명에 불과하여 시는 고액 기부자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냈다.

/화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의대 증원에 '치·한·약대' 지원 덩달아 급증

메디컬 학과 지원 건수 18.4% 증가
이공계 특수대학 5곳은 28.3% 감소

의약학계열 정시지원 증감률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의·치·한·약' 메디컬 학과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최상위권 이공계 수험생이 대거 쏠리면서다.

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메디컬 학과 지원 건수는 총 2만 2546건으로 전년(1만 9037건) 대비 3509건 늘었다.

지원 건수 증가는 전년보다 ▲의대 2421건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 순으로 증가했다.

의대를 제외하고는 치대의 증가율이 높았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치대 지원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1423건)보다 234건 늘어, 증가율 16.4%를 기록했다. 이어 한의대는 지난해 2434건에서 올해 2700건으로 266건(10.9%) 증가했고, 약대는 지난해 7082건에서 올해 7670건으로 588건(8.3%) 늘었다.

그러면서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 10.5대 1(전년 9.9대 1) ▲약대 9.0대 1(전년 8.2대 1) ▲치대 6.1대 1(전년 5.3대 1) 등으로 전년보다 모두 올랐다. 다만, 올해 전국 39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의대 지원 인원은 늘었지만, 정시 모집인원이 지난해 1206명에서 올해 1599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메디컬 부문별로 최고 경쟁률은 ▲제주대 약대 57.0대 1 ▲강릉원주대 치대 15.33대 1 ▲동국대(WISE) 한의대

25.13대 1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경희대 의대 8.22대 1 ▲연세대 약대 9.76대 1 ▲연세대 치대 6.75대 1 ▲가천대 한의대 10.39대 1로 높았다.

의대 모집정원이 올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는 물론 치대와 한의대, 약대 모두 지원 건수와 경쟁률이 상승한 모양새다. 특히, 이공계열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정보원 정시 지원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의약학계열은 지원 상황이 대조적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이공계 특수대학 5개교의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인원을 집계한 결과 총 5125명으로 전년 대비 2019명(28.3%) 줄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간 정시 중복지원도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의약학 계열간 중복합격에 따른 등록 포기, 이에 따른 추가합격 합격인원도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현진 기자



▲선거인단 재구성 고심하는 축구협회...신문선 "중앙선관위 위탁" /사진 뉴스스
▲최신원 대한펜싱협회장 3선 확정...“중장기 발전 계획 세울 것”

▲오징어 게임 시즌2, 2주째 전세계 1위...“종의 의 집” 제치고 역대 2위
▲젊은 예술가의 연극·뮤지컬을 무료로...“두산아트랩 공연 2025”

▲K리그1 수원FC, 전북 B팀 출신 GK 황재윤·폴백 이택근 영입
▲프로농구 올스타전 예매 13일 오후 2시 30분 시작